

# 목포 해상케이블카 개통 효과 극대화 고심

市, 공연 전담조직 만들어 풍성한 볼거리 제공

목포어보·구울비 등 수산 특산품 활성화 박차

목포시가 해상케이블카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볼거리 확충을 위한 공연 전담 조직을 만드는가 하면, 수산 특산품 활성화 대책도 부러벌로 마련해 추진키로 하면서다.

해상케이블카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핵심 콘텐츠인 만큼 지역 발전에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공연 활성화=목포시는 공연 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연기획·문화시설 담당을 신설, 한다. 내년 해상케이블카 개통을 계기로 목포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연을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목포시는 연간 30억을 들여 6개 시립예술단체를 운영,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하

고 있지만 전문성을 겸비하지 못하면서 다양한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목포신안 예술 관계자는 “현재 문화예술 정책은 예술성과 공공성, 효율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문가를 두고 문화예술 정책을 전담토록 해야 공연 문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목포시는 이같은 점을 감안, 전담 부서를 통해 예술단체 운영과 공연 기획·제작·평가 등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수준 높은 공연을 기획, 유치하는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목포시는 공연기획·문화 전담 조직을 통해 지금까지 평화광장, 갯바위, 유달산 등

구, 노을공원 등에서 펼쳐진 공연을 총괄토록 해 시민·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수산 특산품 활성화도=목포시는 해상케이블카 개통과 맞물려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선보인 대표 특산품을 발굴, 육성하는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수산물인 경우 조기·갈치·새우젓 등이 대표 생산 품목임에도, 생물 위주로 판매되면서 가공 상품 개발이 절실하다는 게 목포시 판단이다.

목포시가 지난 4월 ‘보배로운 목포어류’라는 뜻을 담은 수산물 공동브랜드 ‘목포어보’와 개별 브랜드 ‘구울비’ 개발에 나선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목포시는 또 내년부터 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를 통해 ‘목포어묵’ 개발에 나서는 한편, ‘간&건 프로젝트’에 따라 저온건조 공법을 활용한 건조제품류 개발, 판매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부가가치가 높은 식·의약자원 개발에도 적극 나서 유아·장년·노년기 등으로 나눠 이유식 제품, 비알콜성 지방간개선 식품, 요양식 수산물 개발도 검토된다.

수산물 저장·가공 인프라 구축에도 전력을 기울인다. 대양산단 내 1000억원 규모로 수산식품수출단지(2만3000㎡)를 조성하고 공공 냉동·냉장시설 확충을 통해 수산물 저장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수산식품수출단지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권역별 거점형 수출 가공단지 사업으로, 그동안 원물이나 단순 가공으로 유통된 수산물을 고부가가치화하려고 가공, 유통, 수출에 필요한 시설을 집중하는 것이다.

목포시는 이외 수산물 산지가공시설(2018년 4개)과 마른김 정수시설(2018년 4개), 특산물 판매장도 확충하고 상품 포장재·디자인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기독병원은 최근 목포아동원을 방문해 김장 봉사활동을 펼쳤다.

## 목포기독병원 봉사활동 의무시간제 도입

직접 담근 김장김치 전달 등

연간 8시간 이상 봉사 장려

병원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활동 의무시간제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목포기독병원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봉사활동 의무시간제를 도입, 연간 8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목포기독병원은 또 전 직원 송년회

대신, 김장 나눔 봉사와 연탄배달 봉사 활동, 지역농산물 구매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기독병원측은 지난 1일 지역 어르신 150명을 찾아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전달하는가 하면, 휴무일인 지난 4일에는 목포아동원을 방문, 김장 봉사활동을 펼쳤고 ‘사1촌’을 맺은 해남군 산이면 흑두리 마을에서 수확한 고구마 10kg 200박스를 구매, 직원들에게 판매하는 등 상생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 목포시 치매시설 대폭 확충 나섰다

치매안심센터 개소하고 전담 요양원·보호시설 신축키로

목포시가 치매시설 확충에 나선다.

목포시는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치매 전담형 공립 요양원, 주·야간 보호시설 확충을 통해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앞서 목포시는 하당 보건지소에 임시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다.

임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003년부터 운영해 오던 치매상담센터의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간호사 6명과 사회복지사 3명을 확보하고 치매 조기 검진, 치매 등록 및 관리, 치매 인식개선 및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임시 치매안심센터는 내년 2월 새로 설립되는 1048㎡ 규모의 치매안심센터로 이전된다.

목포시는 또 목포시 용해동 목포시의료원 인근에 치매전담 요양원과 주·야간 보호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치매전담 요양원은 21억8800만원(국비 80%, 도·시비 각 10%)을 들여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연면적

1652㎡)로 건립되고 주·야간 보호시설은 4억3700만원을 투입, 321㎡의 규모로 조성돼 40명을 수용하게 된다. 시는 내년 2월까지 부지매입을 마치고 5월 신축 공사에 들어가 내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목포시는 이들 시설이 완공되면 치매안심센터와 연계, 치매 발견부터 장기요양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 전담 요양시설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만3741명(11월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4.4%를 차지하고 있다.

목포시 등록 치매환자 수는 지난 2014년 1406명에서 2015년 1593명, 2016년 1671명 등으로 증가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남향 앞바다에 겨울진객 왔네

노랑부리저어새 20마리 관찰

목포 남향 앞바다에 진객(珍客)이 찾아와 눈길을 끌었다.

10일 목포시에 따르면 철새 모니터링 활동 중 남향 앞바다에서 천연기념물 205호로 지정된 ‘노랑부리저어새’(멸종위기종 2급·사진) 20마리가 관찰됐다. 노랑부리저어새는 주걱 같은 부리를 휘저어 먹이를 먹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저어새와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하고 있다.

13년째 모니터링을 해온 김석이 목포시 학예연구사는 “지난 2008년 5월 처음 관찰된 이후 매년 1~2회씩 관찰됐지만 20개체가 한꺼번에 이곳을 찾은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사는 “남향은 봄이 되면 멀리 호



주에서부터 날아오는 도요물떼새, 겨울철이 되면 여러 종류의 오리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도심에서 쉽게 새를 관찰할 수 있

는 독특한 장소”라며 “지난 13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곳 한곳에서만 180종이 넘는 새를 관찰해 왔는데 준설도 매립

으로 인해 새들의 터전이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사진=김석이 연구사 제공

## 목포시 올 정부 공모사업 389억 유치

목포시가 올 해 389억원 규모의 정부 공모 사업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올 들어 지역 특성을 활용한 사업 아이디어를 개발, 중앙 부처의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해 40개 사업에서 국·도비 389억원을 확보했다.

최근 3년간 선정된 공모사업 현황은 ▲2015년 14억5800만원(13개 분야) ▲2016

년 100억2000만원(18개 분야) ▲2017년 389억9900만원(40개 분야)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목포시는 주요 정책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인프라 확충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지역발전 기여도가 큰 사업에 적극적으로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며 공모사업을 통한 외부

재원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올 해 유치한 주요 공모사업의 경우 ▲해안·내륙권 발전거점형 지역계획 시범사업(국·도비 2억4000만원) ▲드론산업서비스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5억1300만원)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구축(“ 154억원) ▲2017년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공모사업-골목형시장(자유시장)(국비 2억6000만원) ▲2017 다도해검국제요트대회(국·도비 5억) ▲중·소형 선박수리 지원시스템 기반구축(국·도비 185억원) 등이다.

또 전시관광콘텐츠 개발 지원사업비로 7500만원의 도비를 확보, 증강현실을 활용한 공통체험존 구축에 활용하게 됐다.

부서별로는 일자리정책과가 12개 사업에서 국·도비를 확보, 가장 많았고 문예시설풀리과가 7개 사업에서 국·도비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시는 공모사업 유치 결과를 토대로 평가를 거쳐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 슬라브 옥상 스틸 방수 단열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 패널

아파트, 학교, 주택,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옥상 시공

▶방수, 단열 이중효과!

▶냉·난방비 절감효과!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합리적 가격, 단 한번 시공!

※ 무료 출장 견적내드립니다.



목포권, 순천·여수권 등 대리점 모집(영업 및 시공)

**트윈스틸**  
(모던건설)

**H 010-9229-3530**  
**062-5 31-3530**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 45(신안동 478-18)

##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름, 모방물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